

# EBS, Quam Libet.

수능특강 윤리 by 마이뉴

	A는 누구?	22p
1	“과인같은 사람도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 선왕의 질문에 대해 A는 ”신(臣)이 호호에게서 들으니, 왕께서 당상(堂上)에 앉아 계시다가 소를 몰고 당하(堂下)로 지나는 자가 있어, ‘소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피를 내어 제사를 지내려고 하옵니다.’ 왕이 말씀하기를 ‘놔 주어라. 내 그 소가 떨며 죄 없이 사지(死地)에 끌려가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노라.’라고 하셨다니,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셨습니까?”라고 묻고 ”이러한 마음 이면 족히 왕 노릇을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모두 다 왕께서 인색하다고 하지만, 신은 진실로 왕께서 그 꼴을 차마 볼 수 없으셔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A는 무엇?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는 누구? 밑줄 친 그 기(氣)란?	24p
2	<u>그 기(氣)</u> 됨이 크고 지극히 강하여, 곧게 기르는 데 해되는 것이 없으면, 곧 하늘과 땅 사이에 가득 차게 된다. 그 기는 언제나 A(와)과 도(道)에 짝하여 함께한다. 이 기는 A에 따른 행동을 거듭하는 데 따라서 내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밖에서 사람에게 닥쳐와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A(을)를 쌓을 것을 일삼고 그 효과를 미리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누구?	25p
3	음악은 위로는 하늘과 귀신이 용서치 않고, 아래로는 만백성의 이익에도 어긋난다. 오늘날 천하의 사대부 군자들이 진정으로 천하의 이익을 일으키고 천하의 해악을 없애고자 한다면, 음악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각각 누구?	26p
4	A : ... 요순은 본성을 그대로 따른 분이고, 탕왕과 무왕은 인의를 체득한 분이다. B : ...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말아야 한다.	
	누구의 주장? A는 누구?	27p
5	성왕(聖王)이 나지 아니하여 제후(諸侯)가 방자하며, 처사(處士)들이 마구 의견을 내세워 A(와)과 목자의 말이 천하에 가득하여 천하의 말이 A(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목자에게로 돌아간다. A는 나만을 위하니 이것은 임금이 없음이요, ... 그들의 도(道)가 그치지 않으면 공자의 도가 드러나지 못할 것이니, 이것은 간사한 말이 백성을 속여 인의(仁義)를 꼭 막아버림이다. 인의가 꼭 막히면 짐승을 몰아다가 사람을 잡아먹게 하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게 될 것이다.	
	누구?	27p
6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니 위 아래의 차등이 있고, 명군(明君)이 국가의 정치를 처리하는 제도와 차등을 두니, 무릇 귀한 이가 둘이면 서로 섞일 수 없고 천한 자가 둘이면 서로 부릴 수 없음은 자연의 도리이다. ...	

1. 맹자 2. 의(義), 맹자, 호연지기(浩然之氣) 3. 목자 4. A : 맹자, B : 공자 (요순을 몰랐다면 찾아보고 암기하세요. 제시문 독해에 큰 힘이 됩니다. '요순' 체크하시라고 만든 문제입니다.) 5. 맹자의 주장. A : 양주 6. 순자